

테마칼럼

이성훈

정치프리뷰

원래의 눈

문화칼럼

2007 대선, 호남은 지역감정 깨는 '진양' 될 것



김행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 현(주)넥서스 투자 고문)

고건 전총리의 대선불출마선언은 호남의 리더십에 큰 공백을 가져 온 것처럼 보인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호남을 대표할 만한 거물급 정치인이 눈에 띄지 않았던 터라 더욱 그렇다. 언론들은 고 전총리를 지지했던 표들의 향방을 추적하느라 부산하다. 현재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고 전총리 지지표의 54%~68%가 한나라당 쪽 후보들에게로 갔다고 한다. 특히, 이명박 전시장이 최대 수혜자로 밝혀졌다. 문화일보·KSOI의 조사에서는 고 전총리 지지표의 42.6%가, SBS 조사에서는 30.6%가, 글로벌리서치조사에서는 35.1%가 이 전시장쪽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힘입어 이 전총리의 지지율은 최고 58.8% (문화일보 1월 17일 조사)까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있는 정치적 신호

물론 '여당 주자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이 전시장의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18일자 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이 전시장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35.6%이고, 박 전대표의 지지율이 11.5%인 것은 눈여겨볼 만한 의미있는 정치적 신호다. 두 주자와 순화규전지사의 지지율을 합하면 약 40% 가까운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율도 처음으로 20%대를 넘은 20.6%라고 보도했다. 호남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역대 선거를 보면 호남 유권자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모멘텀이었다. 평생을 민주화운동에 몰 바친 김대중 전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랬고,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경선 혁명'이 일어난 곳도 바로 광주였다. 당시 호남유권자들은 90% 이상 몰표라는 놀라운 정치적 힘을 과시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야 비로소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적개심을 풀기 시작했다. 물론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겠지만.

막상 한나라당과 여권의 후보가 결정되면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과거식의 '90%이상' 반한나라당 몰표는 사라질 것으로 확실하다. 현재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40%에 가까운 지지율을 마냥 허수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호남 유권자들은 누구도 꺾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지역감정이라는 망국병을 깨트리기 시작했다. 후보의 출신지보다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참 대통령' 감이 누구일지를 편견 없이 보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인들은 저마다 지역감정 해소를 외친다. 요즘은 여권이 특히 그렇다. 지역감정을 깨는 명분으로 '영남후보론'과 '중대선거구제'를 단골메뉴처럼 꺼낸다. 한나라당에 대한 연정(聯政) 구애도 그렇다. 다 따지고 보면 표 계산 때

문인 것이다. 호남표는 자동으로 다 갖는다 생각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얹자니 영남후보론도 나오고, 충청중심론도 나오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역감정해소를 외치며 영남후보론을 외치는 여권이야말로 진짜 지역주의라는 것이다. 왜 호남은 공짜표로 계산하는가. 왜 후보 자체의 경쟁력으로 진검승부하러 하질 않는가. 호남에 뿌리를 둔 정당에서 단지 영남후보만 내세운다고 지역감정 문제가 해결될까?

참 대통령감을 뽑아야

지역감정 해소는 결단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언제나 지역감정을 이용만 할 뿐이다. 지역감정 해소는 오직 유권자만이 할 수 있다.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출신지'보다는 '참 대통령'감을 뽑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력이 모이면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형이며, 12월 19일 확실하게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 때면 알게 될 것이다. 호남은 지역감정이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깨트리는 진양이 됐을.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아파트 분양률 20%가 투기지역이라니

수도권 중심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광주·전남의 부동산 경기가 초조화되다시피 하고 있다. 주택과 토지의 거래 침체는 물론 아파트 분양률은 바닥을 기고 미분양 아파트는 1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수도권에 적용할 잣대로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방까지 규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 잡으려다 지방경제만 죽이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광주와 전남의 부동산 경기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그럼에도, 광주시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광산구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9천200가구나 되고 실제 분양률이 20~40%에 머무는 지역이 어떻게 투기지역으로 선정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주택투기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경우 강제상환에 나서겠다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실수요자의 거래마저 움츠러들

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지방 주택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찌된 셈인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나라인지 답답하다.

최근의 부동산 정책은 비만인 사람에게 적용할 다이어트 처방을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환자 상태와 체질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은 상식이다. 지역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은 광주시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40% 규정 등 금융규제는 당장 해제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가뜰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할망정 과산지경으로 내몰아서는 되겠는가.

탈북 국군포로 가족 북송도 못막았다니

탈북 국군포로 가족 9명이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신병보호 소홀로 북송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가족들은 영사관의 안내를 받아 부족한 민박집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10월 말 북한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국군포로의 고향이 전남이었다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

영사관의 기본 업무는 외국에 주재하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무역 및 통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선양 총영사관이 탈북 국군포로 가족의 북송을 막지 못한 것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 선양 총영사관은 1975년 남북회담이 최근 귀국한 어부 최옥일씨의 도움 요청을 소홀히 해 작년 2명의 징계와 함께 기관경고를 받은 것이다.

총영사관이 국군포로 가족을 중국 민박집으로 안내한 것부터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민박집에 투숙시켰다고 하지만 안

전에 소홀한데다 과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국 공안 당국이 탈북자를 색출하기 위해 협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민박집을 추천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부는 대책도 문제다. 정부는 국군포로 가족이 공안에 체포된 지 하루만에 북송절차에 들어가는 바람에 외교체널 가동 등 손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군포로 가족의 북송을 막지 못했다. 정부는 '대사관녀(女)' '영사관남(男)'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탈북자 및 남북자 문제에 대해 보다 확실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모호한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된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해서야 되겠는가. 탈북 국군포로 가족의 북송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충북 보은군 외속리엔 하거리 보성선씨 종가(宗家)엔 350여년 간 맥을 이어온 덧간장이 있다. 덧간장을 만들 때 넣는 묵은 간장이다. 차례와 제사용으로 매년 20L 쯤만 만든다고 한다.

덧간장 독에는 술가지·고추·숯을 매단 새끼줄을 쳐 액막이를 했다. 이런 까닭에 마을이 물에 잠기는 수해를 두 차례나 겪었지만, 간장 독은 깨지거나 얼어지지 않고 온전했다고 전해온다.

종갓집 덧간장 제조 비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무공해 콩으로 쏘 메주에다 1년 이상 묵힌 천일염 간수를 섞어 덧간장을 담근다. 그 다음 대를 물러낸 발효균이 든 덧간장을 섞어 벌이

광주시가 떡과 김치, 민속주 등 전통식품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산·관·연구소가 공동참여하는 '전통산업 육성사업'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선도 역할은 광주의 공동 브랜드인 '예담은(떡)'과 '감찰매기(김치)'가 맡을 전망이다. 오는 2010년까지 떡은 연간 300억원대, 김치는 100억원대까지 매출을 올린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새로 발굴·복원하겠다는 전통주가 무엇인지도 자못 궁금하다. 지금껏 광주를 대표하는 술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전통식품의 보존과 육성은 전 세계적 관심사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관광지에 둘러 특색있는 술과 음식을 맛보는 것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하나 전제조건이 있다. 종갓집 덧간장처럼, 정성이 깃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반 번지르면 포장재와 디자인으로, 옛 맛을 살릴 수 없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종갓집 덧간장



기고



이성훈



회사원 이모(42)씨는 1년 전 11살 딸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의료검진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아이가 척추측만증이 의심되며 x-ray를 찍어 확인해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특별히 딸 아이가 아프다고 하지 않고 바쁘기도 해서 1년 동안 잊고 있었다. 그런데 몇 일 전, 옷을 갈아입는 딸을 적주가 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병원을 찾아 x-ray를 찍었다. 진단 결과는 상당히 진행된 척추측만증으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척추측만증은 주의 깊은 부모가 자녀의 어깨나 골반 높이가 다른 것을 보고 병원에 데려오거나, 학교검진 통보를 받고 x-ray를 촬영해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 허리가 휘었잖아!

대부분이다. 통증 등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어려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8배 정도 발생빈도가 높다. 우리나라 여아의 초진시기는 대략 만 12.7세인데, 그 이전에 발생하는 유년기척추측만증은 사춘기 이후 시작되는 청년기척추측만증에 비해 발생빈도는 적지만 예후가 불량해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 시기의 여아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본원에서 최근 2005년 광주시에 남구 6개 초등학교 5학년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검진을 벌인 결과 약 3%가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측만증은 일부 원인을 아는 측만증도 있지만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85% 이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리길이나 골반크기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다.

이럴 땐 족부보조기(일명 깔창)등을 이용해 길이 차이를 보정하면 측만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광주기독병원 재활의학과의장>

김치 담글 줄 모르는 주부 늘어나는 세대 씩씩

지난해 11월 말 담궜던 김장김치가 다 떨어져서 새로 담게됐다. 평소에도 많이 담아서 먹기 보다는 신선한 배추로 자주 담아먹는 편이었길래 이번에도 새로 담기로 하고 시장에서 배추를 사다가 절이며 준비를 했다. 마침 배추를 절이는데 대문밖으로 주부 3~4명이 지나가면서 "어머, 김치를 직접 담그느냐, 정성도 지극하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지나간 뒤 '김치를 직접 담그는 것이 나쁜데'라며 한참을 생각했다. 대도시 젊은 주부들 중 김치 담글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말은 들었다. 하지만 아예 김치를 담글 생각조차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이들이 김치 냄새 맡기 싫어 할까 겁난다. ▲김현주·광주시 동구 산수동



이창규

“어이! 나네. 돈이고 뭐고 놔두고 어디 나가서 일할 곳 없는가?” 지난 연말 정년퇴직한 선배로부터 무거운 어투의 전화가 왔다. 평소 함께 근무할 때는 직장 생활도 한 30년 했으니 이제 좀 쉼 쉬고 여행도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한다던 선배님이 아니냐? “똥배출 애기들도 없고, 뒷동산 올라가는 것도 며칠이고, 집안에 있으니 안 아픈 곳이 없고, 쓸데없는 잡담만 생기니 이리다간 오래 못 살겠네. 어디 나갈 곳만 있으면 좋겠네” 정년퇴직후 15일, 선배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짧은 은퇴 후의 생활이 과장된 것인지 솔직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다.

어르신들 일할 곳 어디 없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전남도의 군단위 농어촌지역은 대개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셈이다.

장수 사회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준비 없이 맞이한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수많은 노인복지정책을 내놓아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수요자와 자원 할당을 고민하는 공급자간 공통분모는 뚜렷한 대안이 없이 뛰는 토끼줄을 목구멍을 거북이걸음으로 쫓아가는 복지 공급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흔히 노인의 공통된 고통으로 경제적 어려움, 질병, 고독, 무로로 노인의 4박 7일 하는데 이러한 고통과 다양한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입찰 브로커를 가짜 세입자 내세워 시위 연출해서야

얼마 전 부동산 중개소에서 32평짜리 경매물건이 있다고 해 소개받았다. 그런데 입찰 당일 법원 밖에서 피켓을 3~4명이 “세입자는 죽어도 못나간다” “전세금 보장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응찰하려는 단독주택 세입자였다고 했다. 그리고 경매도 집이 넘어가면 전세금을 날릴 판국이라며 연일 데모중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송장이 돼서 나가면 나갔지만 그냥 죽어도 못나간다고 고래소리쳤다. 그들이 평생 번 전세금을 날리겠다고 생각하니 착잡한 심정이 들었다. 더구나 내가 그 집을 낙찰받아도 골치만 아플 것같이 음찰

을 포기하고 되돌아왔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어이없다며 허를 찔러 줬다. 그 시위자들은 브로커들이 일당을 주고 동원한 데모용 일꾼들이며 실제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 집의 세입자는 1명뿐이고 브로커들이 입찰을 유찰시키려고 그런 수작을 부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세번만 유찰시키면 경매가 떨어진다며 낙찰가도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때 브로커들이 덤벼들어 비싸게 되판다는 것이다.

이러한 브로커들이 설쳐대는 꼴을 보니 너무나 씁쓸했다. ▲나재필·광주시 서구 벽진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